

광주시 혈세 낭비 안한다면서...

‘시민편의 명분’ 청사 1층 독서공간·영상관 확장 등 8억원 추경 제출

“1층 뒷문 개방·엘리베이터 확충 등 시급한 사안 먼저 고민을” 지적

광주시가 시청사 1층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는 리노베이션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사 리노베이션이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효과를 거둘 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예산을 들이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청사 관리 사안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선 6기들어 광주시가 시민 편의시설 마련을 명분으로 그렇지 않아도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시청사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전형적인 선심성 전시 행정’이라며 반대여론을 빚고 있으며,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도 ‘직원이나 민원인의 대표적인 불만인 엘리베이터 확충 계획이나 고민했으면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청 방문객들은 예산 투입에 앞서 시청사 방호를 이유로 출입을 막은 청사 1층 뒷문을 개방해 시민의 접근권을 높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시청사 1층 리노베이션 비용 8억원 등을 포함한 민선 6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시청사 리노베이션 예산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다.

광주시는 시청사 리노베이션을 위해 일단 8억원을 추경에 제출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리노베이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총 예산 규모는 유동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시청사 리노베이션 추진 TF 팀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며, 1층에 독서공간·시민 (민원)발언대·영상관 확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돼

검토중이다.

이를 놓고 벌써부터 현재 운영중인 1층 영상관이 전체 시민이 아닌 특정인들의 영화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장시 이 같은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청 방문객들 사이에선 도심변화가에서 벗어나 있는 청사의 위치적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다.

실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청사를 오기 위해서는 지하철에서 내려 20분 넘게 걸어야 하고, 버스 노선도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 환승을 해야하는 만큼 독서 등을 하기 위해 시청사를 찾는 시민은 극히 한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끔 광주시청을 찾는다든가 시민 김지훈(42)씨도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처리할 민원이 있어도 시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리노베이션 대신 예산 없이도

개선 가능한 1층 뒷문 개방과 엘리베이터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 1층 뒷문은 항상 폐쇄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뒷문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청사를 한바퀴 돌아 정문으로 들어오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청사내 중앙 엘리베이터의 정체 현상도 심각해 직원은 물론 방문객의 불만이 크다. 특히 점심시간 등에는 중간층의 직원들이 맨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타고 내려오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 직원은 “낮 시간이면 도심 도서관도 비어 있는데, 시청사에 책 읽는 장소를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이용 하겠느냐”면서 “예산이 있다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시민시장과 어울리지 않게 ‘호화청사를 더 호화롭게 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광주시는 민선 5기때도 중국인 관광객 유인 등을 이유로 시청사 1층에 수역원짜리 옥(玉)전시관을 만들었다가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촌보서 ‘행복나눔 캠핑체험’

시, 30일부터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초대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박2일 동안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에서 캠핑을 원하는 소외 가정을 위한 ‘행복나눔 캠핑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복나눔 캠핑체험’은 비용 부담 등으로 캠핑을 하기 힘든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에 다양한 여가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캠핑체험 대상은 기초수급자 2가구, 한부모가정 2가구, 다문화가정 1가구 등 5가구다. 텐트를 포함한 일체의 캠핑장비는 ‘캠핑트럭’ 광주점(대표 정서영)이

무료로 대여한다. ‘캠핑트럭’은 소비자 위탁판매 기반의 프리미엄 중고 캠핑용품 스토어로 평소 유니세프,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캠핑문화는 소득 수준을 떠나 소외되는 계층없이 누구나 가족과 이웃의 어울림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캠핑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마운 비

동북수원지 저수율 94%

광주 식수 걱정 사라져

8월중에 내린 비로 광주지역 주 식수원인 동북수원지 저수율이 94%에 달하면서 식수 걱정을 완전히 털게 됐다.

동북수원지 저수율은 6월말 34%로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7월부터 내린 비로 7월 63%, 8월20일 현재 94%까지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84.0%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300일 가량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율이 확보돼 매년 갈수기철인 봄과 겨울의 식수 걱정을 내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동북수원지 8월 유입량 3647만 m³을 주입해 원수대로 환산하면 81억원에 이르며, 현재 동북수원지 담수량(8651만2000 m³)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93억원에 이른다. /*채희종기자 chae@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 대책 추진

22일~내달 10일 성묘·의료·소방 등 10개 분야

광주시가 추석에 맞아 오는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시민생활안정 대책인 ‘추석명절 10개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연휴기간인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성묘·의료·청소·교통·재난소방·급수의 6개 상황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한다.

우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반이 체불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독려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노임·장비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또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영락공원, 시립묘지 등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성묘객

을 위해 3개 노선의 시내버스 지원15, 응전 86, 518번을 증차·노선 변경을 통해 귀성객과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비상진료 및 식중독 예방,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시민들

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85곳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터미널과 백화점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서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6일부터 10일까지 터미널, 광주역, 광주공항에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배치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정육점·전통시장 등 저울류 특별점검

광주시 25~29일

광주시는 21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

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량측정협회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와 정육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점시지시저울과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이며, 눈금판 교체·스프링 조작 위·변조 여부, 제작 및 수입검정 필증 부착 여부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LF, 광주U대회 정장의류 공식 후원

국내 대표 생활문화기업인 LF가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정장의류부

문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한다. <사진>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는 최근 서울 LF 사옥에서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과 LF 리테일브랜드 사업부장 조수빈 사무가

합석한 가운데 정장의류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LF는 ‘오피셜 스폰서’로서 광주U대회 기간동안 임원, 심판, 시상요원 등이 착용할 정장·유니폼 일체를 공급 후원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까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청: 지멘스 상무점 약업빌딩5층 501호 • 농협(은천지점) • 아비동감자탕